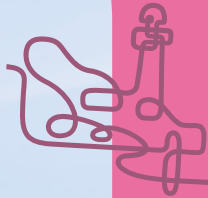


연혁  
HISTORY



1. 행정구역 변천
2. 지역 특성
3. 지명 유래



# 1. 행정구역 변천

## Tradition of Administration Division

연 대	변 천 과 정
삼한시대(三韓時代)	○ 변한(弁韓)에 소속후 가락국(駕洛國)의 속령
신라시대(新羅時代)	○ 거칠산국(居漆山國) 속령(지증왕 6년)
고려시대(高麗時代)	○ 동래현(東萊縣) 소속
조선시대(朝鮮時代)	○ 동래부(東萊府) 편입
1881년	○ 절영도진(絶影島鎭) 설치
1914년	○ 부산부(釜山府)에 편입
1934년 11월 23일	○ 도개식 영도대교(跳開式 影島大橋) 개통
1951년 9월 1일	○ 영도출장소(影島出張所) 설치(12동)
1957년 1월 1일	○ 영도구(影島區)로 승격
1966년 9월 1일	○ 도개식 영도대교 고정
1980년 1월 30일	○ 부산대교(釜山大橋) 개통
1988년 5월 1일	○ 자치구 승격
1991년 4월 15일	○ 초대 영도구의회 개원 사무기구설치
1992년 10월 3일	○ 영도구민헌장 제정
1994년 9월 2일	○ 구청사 신축이전 (남항동→청학2동)
1995년 7월 1일	○ 제1대 민선구청 출범
1996년 7월 1일	○ 영도도서관 개관
1998년 7월 1일	○ 제2대 민선구청 출범
1998년 10월 1일	○ 과소동 통폐합(17개동→14개동) (대교·대평·남항→남항동/봉래1·2동→봉래1동)
2002년 7월 1일	○ 제3대 민선구청 출범
2006년 7월 1일	○ 제4대 민선구청 출범
2007년 1월 1일	○ 과소동 통폐합(14개동→11개동) (신선동, 봉래2동 통합)
2007년 5월 23일	○ 영도구 뉴타운 지구 지정(국토해양부)

## 1. 행정구역 변천(계속)

### Tradition of Administration Division(Cont'd)

연    대	변    천    과    정
2008년 4월 7일	○ 동삼혁신도시 착공
2008년 7월 9일	○ 남항대교 개통
2009년 10월 19일	○ 영도어울림 문화공원 개장
2010년 7월 1일	○ 제5대 민선구청 출범
2012년 7월 9일	○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2013년 11월 27일	○ 영도대교 복원개통
2014년 5월 22일	○ 부산항대교 개통
2014년 7월 1일	○ 제6대 민선구청 출범
2015년 3월 24일	○ 영도구 보훈회관 개관
2016년 9월 2일	○ 영도웰컴센터(영도구관광안내센터) 개관
2017년 9월 1일	○ 구민의 날 제정, 영도구민헌장 개정·공포
2018년 7월 1일	○ 제7대 민선구청 출범
2018년 12월 26일	○ 흰여울 해안터널 개통
2019년 11월 6일	○ 영도해녀문화전시관 개관
2019년 12월 30일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2020년 6월 3일	○ 봉래나루 다누리센터 개소
2020년 10월 27일	○ 영도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개관
2021년 6월 23일	○ 영도 창업지원센터, 영도 여성일드림센터 개소
2021년 12월 17일	○ 블루포트2021 준공
2022년 7월 1일	○ 제8대 민선구청 출범
2022년 10월 1일	○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개장
2022년 12월 5일	○ 베리베리 굿 봉산센터 개소

## 2. 지역 특성 Regional Particular

부산의 최남단에 위치한 영도구는 기후가 온화하고, 해안을 비롯한 섬 전체의 풍광이 수려하며, 옛날에는 제주도에 버금가는 명마의 산지로 유명하였고,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준마를 생산하였다 하여 절영도(絶影島)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영도구는 신석기 동삼동 패총, 태종대, 영도다리 등의 역사적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 중앙부에는 해발 395m의 봉래산이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남향, 봉래동 등 저지대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깨끗한 남해와 접한 전형적인 배산 임해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구, 중구 등의 원도심과 인접해 있는 영도구는 대교동과 중구 남포동으로 이어지는 영도대교, 봉래동과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부산대교, 영선동과 서구 암남동(송도)으로 이어지는 남향대교, 그리고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으로 이어지는 부산항대교까지 총 4개의 교량(橋梁)을 통해 도심부의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영도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인 다나카 조선소가 발동기를 장착한 배를 개발·보급하면서 조선산업 1번지로 부상하였으나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영도구는 조선업 부흥을 위해 수리조선 산업 고도화 및 선박 개조·재제조 등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조성 및 청학·동삼 부스트벨트 구축을 통하여 해양新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아울러, 영도구는 흰여울문화마을, 갯강이에술마을,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등 지역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건에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지역자원을 연계한 문화도시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하여 도시문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는 등 명품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우리 구민들과 합심하여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 3. 지명 유래 Origin of Region Name

#### [ 영도구(影島區) ]

영도구는 동삼동(東三洞) 패총을 비롯한 아치섬(朝島), 청학동(靑鶴洞), 영선동(瀛仙洞) 등의 패총으로 보아 부산지방에서 가장 먼저 주거가 시작되었던 곳이다.

영도(影島)라는 말은 절영도(絶影島)가 줄어서 된 말인데 통일신라시대부터 이곳은 말(馬)이 유명하여 이곳 말이 달리면 너무나 빨라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하여 절영도라 칭하였다 한다. 1881년 이곳에 절영도진(絶影島鎭)이 설치되었는데 이후 영도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개항 이전에 영도는 극소수의 사람이 살았을 뿐 절해고도나 다름이 없다가 개항 이후 어항(漁港)으로 발전하여 도시화되었다.

1951년 영도출장소가 설치되고 1957년 영도구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대교동(大橋洞) ]

영도는 신석기시대부터 선인들의 주거지가 되어 왔으나 임진왜란 이후 무인절도(無人絶島)로 바뀌었다. 그 원인은 임진왜란 후 왜적의 재침(再侵)이 두려워 주민들이 섬을 버려두고 타처로 이주한데다가, 초량대전의 개설과 더불어 왜관과 가까운 까닭에 사민책(伺民策)이 적극 장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어업 등의 이유로 소수의 주민들이 전체 백호(百戶)미만으로 산재하였는데 1881년 절영도진(絶影島鎭)이라는 첨사영(僉使營)이 세워지면서 주민의 수가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교동은 1914년에 북빈정(北濱町)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의 자갈치 부근을 남빈이라 하는데 반하여 북쪽 바닷가의 마을이라는 뜻이었다.

1931년 영도대교가 개통되면서 그 이름을 따서 대교동(大橋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 [ 대평동(大平洞) ]

대평동은 원래 풍발포(風發浦)라 불리었는데, 풍발은 바람이 이는 것처럼 기운차게 일어나는 뜻으로 도구의 지세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1931년 일제 강점기 때 영도 서북쪽의 바다를 매립해 갑정(岬町)이라 하였다. 대평동은 매립 당시 파도가 거칠고 바람이 강해 풍발포가 대풍포(大風浦)로 바뀌었고 해방 후 1947년 왜식 동명 정리 때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 지길 바라는 뜻에서 풍(風)을 평(平)으로 바꿔서 대평동(大平洞)이라 불리었다.

### [ 남항동(南港洞) ]

남항동의 옛 이름은 석말(石末)추였는데, 그 유래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1885년 절영도 첨사(僉使) 임익준이 영도의 행정지명을 지을 때 동해(東海)는 본래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하여 신선과 연관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이때 석말추도 신선이 사는 시내가 있다는 뜻의 영계(瀛溪)로 개명되었다.

1931년 영도대교 개통 시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왜식 동명으로 석견정(汐見町)이라 불리었다. 해방 후 동명 개칭 작업 때 이곳에 어업기지 및 수산관계기관이 운집해 있고, 부산의 남항(南港)을 끼고 있다하여 남항동(南港洞)으로 고쳤다.

### [ 영선동(瀛仙洞) ]

영선동의 옛 이름은 나릿가(津)였다. 현재의 부산 옛 시청 자리인 용미산(龍未山) 아래에서 영도로 향하는 배를 타면 닿는 나루가 바로 이곳이라 나릿가라 불리었다. 1885년 절영도 첨사(僉使) 임익준이 영도의 동명을 새로이 지을 때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동해에 있는 섬 이름인 영주(瀛州)의 이름을 따서 영선(瀛仙)이라 지었다.

일제시대에 이곳이 일본 쪽을 보기에 알맞은 곳이라 하여 어영정(御影町)이라 불렀으며 해방 후 영선동이란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다.

### [ 신선동(新仙洞) ]

신선동에는 어느 때의 묘당(廟堂)인지 알 수 없으나 세칭 하씨당(河氏堂)이라는 당집이 있었다. 이 당집은 영도 초등학교의 전신인 사립 옥성학교(玉成學校) 시절까지 수림 사이에 있었으나, 학교부지 확장에 따라 훼손되었다. 이 하씨당은 원래 아씨당에서 연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여자를 주신(主神)으로 모신 것이었다.

당(堂)의 주인이 여신선(女神仙)인 까닭에 1885년 첨사(僉使) 임익준이 영도의 지명을 정할 때 새로운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신선(新仙)이라 지었다 한다. 일제시대에는 북서쪽 개펄을 매립하여 산수정(山手町)이라 불렀으나, 해방 후 옛 이름을 회복하여 신선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 [ 봉래동(蓬萊洞) ]

영도는 하나의 큰 산으로 되어있는 섬으로 조봉(祖峯), 자봉(子峯), 손봉(孫峯)의 세 봉우리가 있다. 이 산의 이름을 세칭 고갈산(姑竭山)이라 불러왔는데 절영도진(絶影島鎭)의 첨사(僉使) 임익준이 영도의 지명을 한문으로 고쳐 지을 때 이곳이야말로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하여 산 이름을 봉래산(蓬萊山)이라 명명하였다. 봉래동은 영도의 모든 동(洞)이 봉래산 아래에 흠어져 있으나 산세의 주맥(主脈)이 닿는 곳이라 하여 이름 지어졌다.

일제 때는 부산항을 마주한다 하여 항정(港町)이라 불렀고 해방 후 봉래동(蓬萊洞)이 되었다.

### [ 청학동(靑鶴洞) ]

청학동은 선사시대의 조개무지(貝塚)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선인(仙人)들의 주거지였음이 분명하나, 임진왜란 후 영도의 공도책(空島策)에 따라 인적이 끊어졌다. 이후 어장(漁場)의 개발에 따라 뚜껍바구(蟾岩), 녁섬방우, 덩버들 등의 해안 지명이 생겨나고 이후 인가가 들어섬에 따라 조내기라는 지명도 얻어졌다.

조내기(潮落里)란 바닷가는 낮고 개펄이 많아 썰물 때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는 조락(潮落)한 곳이 많아 붙여졌다 한다. 한편 통신사 조엄이 일본에서 고구마를 가져와 이곳에서 처음 재배 하였다는 데서 조서(趙墅)를 낸 곳이라 하여 조내기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후 첨사(僉使) 임익준이 한문식 지명으로 바꿀 때 신선이 타는 학의 형상이라 하여 청학동이라 고쳤다. 일제시대에 청학정(靑鶴町)이라 하였다가 해방 후 청학동(靑鶴洞)이란 이름으로 돌아왔다.

### [ 동삼동(東三洞) ]

동삼동은 이른바 상리, 중리, 하리의 3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삼동은 관내의 동삼동 패총, 아치섬 패총 등으로 미루어 신석기시대부터 우리의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다. 임진왜란 이후 영도가 빈 섬으로 남겨져 있을 때에도 동삼동만은 어장으로 어민들의 출입이 빈번했으며, 영도 설진(設鎭) 이전에 가장 먼저 부락이 형성된 곳이다. 동삼 상리는 웃서발(上西跋)이라 하고, 동삼 하리는 아랫서발(下西跋)이라 하여 어장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동삼동 중리는 검정방우(黑岩)라 불렀으며, 구진소(舊鎭所) 부근은 동지(東地)라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지형 지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도에 목마장이 생김에 따라 첨사 임익준은 웃서발을 상리로 개칭하였고 중리는 영도가 신선이 사는 곳인데 이중 진소가 있던 동지가 신선의 거처라고 영주(瀛州)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일제시대 때 동산정(東山町)이라 불리다 1947년 오늘의 명칭으로 바뀌어 불려졌다. 동삼동은 영도 동(東)쪽의 3(三)개 마을이란 뜻이다.